

□국내 신간 도서

2009. 09. 02. (수) | 편집진

지식의 쇠퇴

오마에 겐이치(지은이), 양영철(옮긴이)|말글빛냄|2009

일본의 저명한 경제평론가인 저자가 지식이 급격히 쇠퇴하는 일본의 현 상황을 비판하고 이를 극복해 나갈 방법을 제시한 책이다. 저자는 일본인을 포함한 전 세계 현대인이 남녀노소를 불문하고 '좁은 시야'에 갇혀 있다고 지적한다. 자신의 주위밖에 보지 않는 탓에 사고가 정지된 '생각 없는 인간'이 급증하고 있다는 설명이다. 예를 들어 분수를 계산하지 못하는 대학생이 증가하고 있고, 초등학생과 중학생의 학력도 눈에 띄게 떨어지고 있다. 또 하류사회를 형성하는 젊은이들이 직업이나 공부에 대해 의욕을 잃고 있다. 저자는 국가가 국민을 지키지 못하는 시대인 지금, 스스로의 힘으로 자신의 생활을 지키고, 인생을 재고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생각하는 힘' 즉 문제 해결력을 강조한다. 저자는 '집단지능'이 발달한 국가일 수록 글로벌 경제에서 번영할 것이라고 주장한다. 집단지능이란 개인의 지성이 모여 생기는 지성으로, 우수한 개인이 창출하는 지식보다 뛰어난 경우가 많다. 국민 한명 한명이 생각하는 힘을 기르는 것은 국가 전체의 지능을 높여 세계로 뻗어 나가는 첫걸음이라는 의미이다.

경제의 교양을 읽는다 – 고전편

홍훈 외|더난출판|2009

홍훈(연세대), 김진방(인하대), 박만섭(고려대), 류동민(충남대), 박종현(진주산업대) 등 국내 경제학자 5명이 아리스토텔레스에서 레닌까지 경제학의 흐름을 바꾼 인물들의 고전 20권을 선별해 새롭게 해석한 책이다. 현실의 경제는 정치나 문화 등 여타 사회 부분과 밀접하게 연결되거나 뒤섞여 나타난다. 예를 들어 강남의 아파트 가격은 경제 이론에서 말하는 바와 같이 수요와 공급, 그리고 개인의 합리성만으로 설명할 수 없다. 갖가지 건설 법규, 주택 정책, 그리고 토지와 주기에 대한 한국인 고유의 역사나 문화적 요소들이 혼합돼 있다. 경제학 고전은 여러 갈래로 세분화된 현재의 경제 이론들과 달리 사회 여러 부문들 사이의 연계나 상호의존성을 당연시하고 있다. 이 책은 일상 속에 스며들어 있는 경제의 흐름과 이에 대한 연구들의 시작과 끝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풀어놓았다. 정치 철학과 혼동되어 있던 아리스토텔레스의 경제학에서부터 하나의 독립된 학문으로 정립되는 고전파 경제학, 여기서 갈라져 나온 두 갈래 분파인 한계주의와 마르크스주의 경제학까지 경제학사의 중요 마디를 이루는 학자들의 사상과 이론, 그리고 그 영향에 대해 다루고 있다.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 표시



이 저작물은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비영리-동일조건변경허락 2.0 대한민국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